

사회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미스터리 보름

누가 이 마을에 '불신의 독극물' 넣었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발생 보름(21일)을 넘었지만 경찰 수사가 미궁에 빠지면서 주민들간의 의심과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계획 살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을 사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신 때문이다. 22일 부터는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조사까지 실시될 예정이어서 민심은 더욱 흥흥해지고 있다.

◇불안에 휩싸인 마을=21일 오후 1시30분 순천시 황전면 Y마을. 127가구, 264명이 거주하는 이 마을의 대문은 대부분 닫혀 있었다. 마루나 평상 등 바깥에 내놓은 음식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보름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길을 가다 제 집처럼 이웃집에 들러 점심을 얻어먹고 다닐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 6일 오전 8시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희망근로에 참가한 마을 주민 4명 중 최모(여·59)·정모(여·69)씨 등 2명이 독극물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이다.

나머지 장모(여·74)·이모(여·75)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했다. 현재 이씨는 자신의 집에 몸져누워 있고, 장씨는 집 대문을 굳게 닫은 채 어디론가 떠난 상태다. 외부인의 방문이 뜸한 마을에 빚어진 '미스터리 사건'이 한적한 마을 분위기를 일순간에 바꿔 놨다.

마을 주민 김모(여·71)씨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예 이웃집에



“얼른 범인이 잡혀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21일로 발생 보름을 맞았으나 수사에 진척이 없어 민심 좋기로 소문난 마을 민심은 흥흥해지고 불신감만 쌓여가고 있다. 황전면 Y마을 주민 심터에는 침묵만 감돌고 있다. /순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찰 거짓말 탐지 조사... 민심 흥흥

“문 걸어 잠그고 이웃과 말도 안해요”

가질 않아. 서로 말도 잘 안 한답게. 마을 주민 대다수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인데, 서로 말은 안 해도 환장할 노릇이제. 얼른 범인이 잡혀야 예전으로 돌아갈라 모르겠소”라고 하소연했다.

◇누굴 노린 범행인가? =경찰 수사자는 '범인이 누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찰은 주민들을 상대로 사망자들의 대인관계에 대해 전수조사

를 벌였지만 특별한 원한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또 사망자들의 친분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자주 어울려 다니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씨가 평소 막걸리를 즐겨 마신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건 당 말 마을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진술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씨의 세세한 습관과 행동패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소

행이라는 것과 함께 최씨를 노린 범행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특히 범인이 이 마을에서 관매되지 않는 막걸리를 범행에 사용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경찰 수사=경찰은 마을 사람들이 사망자들에 얽힌 재산 갈등이나 치정 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2일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다. 특히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1차 진술조사에서 용의선상에 오른 용의자의 행적을 파악하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순천=이종현기자 galee@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일자리·건강·희망...전부를 잃었어”

■ 생존자 이모 할머니

“몸뚱아리 하나라도 목고 사는 사람이다. 몸이 성할 않아 어찌 살지 걱정이요.”

21일 순천시 황전면 Y마을에서 만난 이모(여·75) 할머니는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걱정스러운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할머니는 지난 6일 희망 근로에 참가했다가 독극물이 든 막걸리를 나눠 마신 4명 중 한 사람이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

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이 할머니는 당시 독극물을 마시고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목소리도 쉬어 나지 않고 있다. 걸음걸이는 겨우 한 걸음씩 땀 정도다.

무거운 몸보다 이 할머니의 가슴을 더욱 짓누르는 것은 잃어버린 일자리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살던 이 할머니는 그동안 남의 식당 등에서 일하던 중 한 달 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소개로 희망근로 사업에 참가하게 됐다.

일당도 3만6천원으로 다른 일보

다 수입이 많았다. 이 할머니는 약 찻같이 일했다.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게 됐다. 자녀들에게 신세지지 않겠다는 이 할머니의 희망도 무참히 깨졌다. 병원 치료비 100만원을 자녀들이 낸 것이다.

이 할머니는 “내가 전생에 뭘 죄를 짓길래 이런 벌을 준대요. 내가 한 것이라곤 남의 집에 가서 일한 죄밖에 없단 말이요. 몸을 놔 줄 좀 잡아주세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순천=이종현기자 galee@



‘수뢰’ 광주시장 비서관 영장

2억 건넨 업체 전 대표 구속

광주지검 수사 확대

검찰이 광주시가 추진 중인 IT사업 과정에서 역대 최다의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 관련 업체 전 대표를 구속하고 시장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21일 광주시의 '유-페이먼트(U-Payment)' 사업과 관련해 역대 최다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광주시장 비서관 구속 영도(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영씨에게 역대 최다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G업체 전 대표 하모(45)씨 구속했다.

영씨는 지난 2월 광주 시내 한 식당에서 '유-페이먼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하씨와 광주 모 대학 교수 C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영씨와 하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C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 20일에는 광주시청 비서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뇌물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를 벌였다.

특히 검찰은 광주시가 수년째 추진 중인 '유-페이먼트' 사업이 3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인 데다 영씨가 박광태 광주시장의 측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영씨가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시가 발주한 사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고위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위 '뒷선'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참 (7861)



유형업소 '뒷돈' 경찰 징계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전근무지인 서울 강남지역의 유형업소 업주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고흥경찰서 김모(37) 경장이 2006년 강남지역 유형업소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김 경장의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대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고교생들 흥친차로 음주 뺑소니

○목포경찰은 21일 흥친 승용차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A(18·고3)군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18·고3)군 등 2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입건.

○A군 등은 지난 20일 새벽 2시 30분께 목포시 모 은행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도 0.05% 상태로 무면허 운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B씨 등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나 순찰차 4대와 10분 동안 추격전을 벌인 혐의.

○A군 등은 지난 2일 밤 11시께 목포시 모 오피스텔 앞에 세워진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다니던 중 음주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범행 일체가 탄로. /목포=대성기자 dss@

“내 남자 만나지마!”

광양경찰, 내연남 직장동료 살해 40대 구속

광양경찰은 21일 자신의 내연남을 만나며 내연남의 직장동료를 살해한 강모(여·43)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월 14일 광양시 모 버스터미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A(여·42)씨의 차 안에서 "내 남자를 만나지 마라"고 요구했다가 말다툼 끝에 A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내연남(37)

과 사이에 세살배기 아이까지 뒀으나 내연남이 A씨와 시의 출장은 물론, 가족모임에도 참석한 사실을 알고도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범행 뒤 A씨가 차 안에서 허리를 쭉고 자다가 질식사한 것처럼 위장했으나 더운 날씨에 허리를 쭉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에 의해 덩미가 잡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부도’ 中企 회장 목매 숨져

20일 오전 8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K오피스텔에서 모 중소기업 회장 박모(56)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사장 김모(53)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주)K사를 설립하고 종업원 수 55명, 공장부지 1만 5천663㎡ 규모로 산업용 LPG용기와 차량 및 가정용 가스 용기 등을 생산해왔다. 이 회사는 한때 국내와 일본, 베트남 등에 제품을 수출하는 등 사

업이 호황을 맞았으나, 올 들어 극심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 회사가 지난 7일 부도처리됐다”며 “회장님이 그 부분을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의 오피스텔에서는 “뒤 처리를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 꼭 필요한 사람이 돼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미호은블나리 장마철 특가진
 들짐대는 녹녹한 장마철이 구입하기 쉽습니다.
 ●참: 순: 광주신세계 지하 1층 행사장(02) (02)259-1222

Onclan

방수와 단열이 하나로
 IPALD 스프레이폼이 지중난방시스템 필수요건

www.ipald.com